



수락글방 작은도서관

#경기도 의정부 #시설공사비 지원

주민을 생각하는 곳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지하1층에 위치한 수락글방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앞 탁 트인 넓은 공간과 큰 어울림방이 함께 있어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체 프로그램과 장암동 주민센터 수업이 진행되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독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딱딱한 도서관의 느낌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오고 갈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수락글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따뜻한 도서관에서 따뜻한 마음 기르기

더욱 따뜻한 도서관이 되어 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따뜻하게 이용하여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수락글방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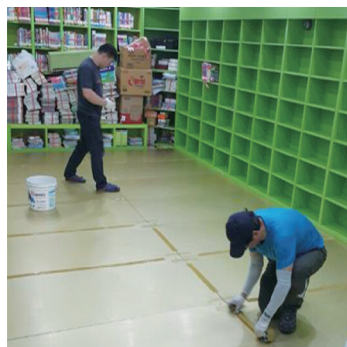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수락글방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전에는 책장이 가운데를 가로질러 있어 좁은 통로에서 책만 뽑고, 바닥에 난방이 안 되어 편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위주의 도서관 역할만 했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역시 부족했습니다. 공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던 때 긴급지원119라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점점 늘어지는 공사 일정과 공사 규모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사를 처음 진행해봐서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했는데, 글방 회원들께서 일을 분담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주셔서 차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좋은 일에 봉사한다며 하나라도 더 신경 써 주시고 챙겨주셔서, 공사 후반부에는 예상과 달리 빠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기 전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 내용도 바뀌고 설계도 바뀌었습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가끔은 공사가 궁금한 아이들이 찾아와서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글방회원들께서 자기일 마냥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방을 지나던 주민께서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 말 한마디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임했고, 그 말이 순간순간 힘이 되었습니다.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공사가 끝나고 오픈식 날,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은 확 달라진 도서관에 환호성과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엔 많은 분들이 이용 공간이 좁고 차가운 바닥이 불만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이제는 확 바뀐 도서관을 보며 예쁘게 잘 꾸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회원들은 그 목소리에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뿌듯함과 보람만이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탁 트여 더욱 넓어진 실내와 낮은 소파, 따뜻해진 바닥이 도서관 풍경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편한 자세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성인 주민들과 유아의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 집 보다 따뜻하고 좋다.” 말하며 내 집처럼 바닥에 엎드려 편하게 책을 읽습니다. 배 깔고 책보는 아이들을 보며 자꾸 미소가 지어지네요.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수락글방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최근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도 바뀌었으니 저희 글방 봉사자들도 글방 이용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간 구비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수락글방 작은도서관 활동가들, 수락글방 작은도서관을 위해 공사라는 큰 일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대표자라는 직책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신 부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난 지금 더 밝고 넓어진 도서관을 보며 힘이 나실 우리 대표님들께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